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 “현안 해결 원팀 넘어 한 몸 되겠다”

광주시·시의회·시교육청 초청 당선자 7명 참석 현안 논의 강기정 시장 “국회 도움 없이 발전 어려워 손잡고 함께 뛰자”

4·10 총선 광주지역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넘어 한 몸’으로 뭉칠 것을 약속하면서 이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정선 교육감, 광주 5개 구청장, 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를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를 전진숙·광산갑 박군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7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당선자인 민형배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은 각각 29건(주요 현안 12건·내년도 국비 사업 17건), 6건의 현안 사업을 당선자들에게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당선자들에게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대한민국 AI 실리콘밸리 조성, AI-미래차 산업,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 등에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시교육청은 청사 전환 배치,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국립 대안학교 설립, 산업 맞춤형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등을 건의했다.

정무창 의장은 당선자들에게 AI가 만든 캐리커처를 전달하며 광주 발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회로 지역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정진욱 당선자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요청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의원 혼자 풀 수 있겠냐”라며 “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신의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공을 내세우기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거처하며 국가 예산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안도걸 당선자는 “예산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제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좋은 콘텐츠를 담은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면 예산은 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철 당선자도 지역 고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끊임없이 다녀야 하는 점 등을 들며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22대 총선 광주지역 당선자 7명과 광주 단체장들이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양부남 당선자는 AI, 친환경 미래차, 서구 서창과 남구 대촌 빛가람 접경 지역에 밀리언시티 도시구축 등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신지식 기반으로 지역 산업을 재탄생시킬 것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정준호 당선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연내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곧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광주 8명 당선자가 한 목소리로 광주와 호남을 대표해 의견 전달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떤가”라고 건의했다.

광주 북구의원, 광주시의원을 거친 전진숙 당선자는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광주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는 ‘광주 전략회의’ (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광주의 굵직한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지역구인 광산갑 박군택 당선자는 대구·경북과 같이 통합공항 이전, 국고보조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안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당선자들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 끝난 뒤 “광주와 국회가 원팀을 넘어 한 몸으로 뭉쳐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역구를 초월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 도움 없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한 발자국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비 예산 확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선자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뛰겠다”고 화답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영수회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이번 주 어려울 듯

홍철호 수석 “조건 없이 대화” 천준호 실장 “민생 살릴 기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입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를 전 첫 만남에 이어진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예상됐던 이번 주 회담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 수석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자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사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거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사전 의제 제안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 데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 실장은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제는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총선의 엄숙한 민심을 민생을 살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 여당 낙선자들 만나 “부족함 깊이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총선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

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찬에서는 여권 전체가 반성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적잖이 나왔다고 한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의견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더스트리 **사람다운 자연친화적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